

일본, '한국인 여행객 반토막'에 충격

한국의 여행 불매 운동으로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 수가 반토막 났다. 일본 언론들은 관광 업계의 피해가 현실화 됐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일간지 6개 중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 4곳은 이날 조간 지면에서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가량 줄었다는 전날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발표를 1면 기사로 다뤘다.

일본정부관광국이 전날 발표한 외국인 여행자 통계(추계치)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자 수는 30만8천700명으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48.0% 줄었다. 감소 폭은 불매 운동이 시작된 첫 달인 7월 감소 폭(7.6%)의 6배에 가깝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뿐 아니라 대만과 홍콩 여행자의 감소도 우려된다며 1~8월 대만에서 일본을 방문한 여행자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으며 홍콩 여행자 수는 송환법 반대 시위의 장기화로 2%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특히 대만과 홍콩 모두 '재

방문자'의 비율이 80% 이상이라며 "일본 여행이 질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관련 소식을 전하며 "한일 간 대립 완화 징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의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 지고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아사히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2020년까지 연간 일본 방문 외국인 수를 4천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의 '연간 외국인 여행자 4천만 명' 목표와 관련해 도쿄신문은 "목표 달성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고 표현했으며, 니혼게이지사이신문은 "달성이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 관광객이 줄었지만 다른 국가 관광객은 증가했다며 평가절하하기 위해 애 쓰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관광객은 대폭 감소했지만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16%, 미국과 동남아는 13% 늘었다."고 말했다.

이란, 미·사우디 공격하면 "전면전"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공격으로 인해 이란에 어떤 공격이라도 받게 되면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란의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사우디가 이란을 상대로 군사공격에 나선다면 결과가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전면전"이라고 답했다. 그는 자리프 장관은 "이란은 전쟁과 군사적 대립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만약 미국이나 사우디 군사 공격에 맞서 우리 영토를 지켜야 한다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앞서 14일 사우디 동부의 아브카이크 정유시설과 쿠라이스 유전이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당해 산유 능력이 반 정도 훼손됐으며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는 트윗을 냈다.

자리프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란 배후설을 거

듭 부인했으며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도 차단했다. 자리프 장관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와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은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완전한 제재 완화를 하지 않는 한 복귀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습 사건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데 대해 예멘 반군은 19일 공격에 사용된 무기의 기종을 공개하고, 자신들이 직접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예멘사레아 반군 대변인은 경고성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목표 시설물의 파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미국과 사우디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더 중요한 시설과 목표물이 불에 타버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다음 타깃은 UAE가 될 것임을 알렸다. UAE는 2015년 시작된 예멘 내전에서 미국과 사우디가 주도한 동맹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볼리비아 산불 피해 확산 야생동물 생태계도 위협

두 달 넘게 타오르고 있는 볼리비아 산불로 이 지역에 서식하는 재규어와 퓨마 같은 포유류와 투칸, 파라바 등 조류를 포함한 멸종위기 동물들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두 달이 훌쩍 넘는 기간 이어진 볼리비아 산불은 동부 산타크루스 지방을 중심으로 2만km²가 넘는 삼림을 태웠다. 진화 과정에서 인명 피해도 잇따랐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산속 동물들도 희생됐다.

볼리비아 환경단체 나티바재단의 이반 아르놀드는 "산불 피해 지역에서 생존한 몇 안 되는 동물들도 사실상 죽은 목숨"이라며 "수십km 내에 마실 물도, 먹이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험에 처한 이 지역 동물 중에는 이미 멸종위기 상태였던 동물들도 많다. 특히 무리 지어 생활하지 않고 단독 생활하는 재규어의 경우 먹이를 구할 수 있을 만한 장소로 어서 이동하지 않는다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가장 큰 동물이라고 동물학자는 우려했다.

또 투칸, 파라바, 과카마요 등 조류들이 잿더미가 된 산간 지역 대신 도시로 떼 지어 이동했다가 사람들에게 포획되거나 먹이를 찾지 못해 굶어 죽을 가능성도 있다.

재규어나 조류보다 이동성이 떨어지는 아르마딜로 등 소형 포유류들은 멀리 달아나지도 못해서 산불 지역에 갇히기 십상이다.

브라질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볼리비아는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등과 아마존 열대 우림을 공유하고 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 아마존 지역에서 4만 건 이상 화재가 발생해 서울(605.2km²)의 약 15배 면적인 9,060km²(90만6,000헥타아르)가 소실됐다.

화재의 1차 원인은 농민들이 화전을 일구기 위해 숲에 불을 지르는 행위로 지목된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 아마존의 건기(일반적으로 4~9월)가 비교적 일찍 시작됐고, 7~8월엔 고온 현상까지 겹쳐 화재가 쉽게 가라앉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